

인생이 붕괴될 때

성경말씀: 렘10:19-24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할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소망의 목사
인간의 공통 소망: 만사형통, 번영신학 유행
인생은 무엇인가? 실망과 고통의 연속(욘14:1-2), 실수와 상처와 고통은 삶의 한 부분, 이겨내야 한다.

예레미야

뜻: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 BC 625-585년까지 약40년 동안 사역함

애국자, 바빌론의 세 차례 침략: 유다 붕괴, 이집트에서 생을 마쳤다. 눈물의 대언자
요시아 왕 시대(1:2), 제사장의 아들(렘1:1), 배 속에 수태되기 전에 대언자로 세우셨다(1:5).

그의 사역 임무(1:7), 주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8).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말들을 주심(9)

주님의 말씀의 내용: 북쪽에서 재앙이 일어나 유다를 치리라. 바빌론을 섬기라(14-15).

주님의 약속: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놋 성벽,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18-19).

부르심의 대가: 민족을 치는 말씀을 선포해야 함. 백성이 등을 돌리고 친척들이 등을 돌렸다.

심지어 그는 결혼하지 말하는 명령을 받았다(16:1-2): 아내, 아이들을 두지 말라.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다.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 ★★★
그의 말(렘10:19), 바르게 믿는다고 일이 잘되지 않는다. 어쩌면 더 안 된다. <인생이 붕괴될 때>

그의 상처와 고통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처와 고통이 생긴다. ★★★

어느 정도로 인생이 붕괴되었는가?

1. 전적인 붕괴이다(20): 가정, 재정, 직장, 기쁨이 없다, 우울증이 생긴다.
2. 광야의 장막은 갑자기 붕괴된다.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소망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 붕괴
지진, 홍수 예방 기구 발명, 그러나 여전히 재앙은 순식간에 온다. 이 나라는 김정운의 핵폭탄 위협
3. 사람 눈에는 복구 불가능(20): 인간의 힘으로 유다를 복구하는 것, 백성을 돌리는 것 불가능,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재앙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다.
4. 이것은 개인의 재앙: 내 장막, 내... 내 상처(19), 내게 화가 있다. 내가 감당해야 함

유다 백성 패망의 원인

극심한 우상 숭배(렘10:2-3), 이교도들의 길로 간다. 하늘의 표적들을 구한다.

결과: 사람이 짐승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14절).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치장하는 것 등 세상의 것에만 신경을 쓴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14). 영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고: 1. 우상 숭배 대상 신들(11), 2. 우상 숭배자들(18, 20), 괴로움이 임한다. 자녀를
잃는다. 나라를 잃는다. 우리의 경우 믿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잃는다. ★★★

여기에 예레미야의 상처와 고통이 있다. 우리는 어떤가? 어떤 상처와 고통이 있는가? ★★★

1. 실망과 고통은 오게 마련이다

믿는 자에게도 실망과 고통은 오게 되어 있다. “내 상처로 인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19)

만사형통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개 평생토록 실망과 고통 중에 살았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실망과 고통이 배로 증가된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실망과 고통이 생긴다. 목사/사모가 되 보니 알게 됨

모세는 하도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니 죽여 달라고 간청했다(민11:15).

우리 앞에 고통과 실망이 있을 것을 예측해야 한다. 여기에는 면제가 없다.

특별히 목회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 인해 고통과 실망이 있을 것이다. 명심해라. ★★★

2. 성도의 실망과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23)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핍박이 온다. 갑자기 재앙이 닥친다.

26장: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다.

28장: 동료 중 하나인 대언자 하나냐가 그를 대적하였다.

36장: 대언의 말씀을 전할 때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를 죽이려고 함

38장: 시드기야 왕이 백성에게 굴복하여 그를 말기야의 지하 가옥에 넣었는데 거기에는 물은 없고
진흙 진창이었다. 진창 속에서 빵을 먹지 못해 죽게 되었다.

39장: 예루살렘의 함락, 침략자들이 왕의 눈을 빼는 것을 봄

43장: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진리를 전하다 순교하였다.

목양자 포기(20장 9절),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비극을 겪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감당하여야 하리라.”(19)

우리는 어떤가? ★★★, 성경 무오성, 성경의 완전성, 신약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 건강한 가정, 애국,

예기치 않은 어려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이 되지만 결코 그분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분에 뜻을 거역하면 우리가 부러지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면 그분이 흥하게 된다.

인생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겨야 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23)

우리 눈에 일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 안에 뜻을 두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

3. 실망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빛어진다.

그의 삶은 실패처럼 보였다.

아마도 한 10명 정도가 회심한 것으로 보였다. 나라가 망했다. 백성이 죽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인간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빛어내셨다. ★★★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질문(마16:13)

“예레미야와 같나이다”(14절).

예레미야는 고통과 실망을 아는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

예수님과 같다니 이 얼마나 큰 영예인가? ★★★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실망과 고통을 가장 많이 경험한 분: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세리와 창녀들 같이 영이 가난한 소수 외에는 모두 그분을 배척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제자에게 버림을 받고,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그분은 앞에 놓인 기쁨과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참았다(히12:2).

롬8:28, 다음의 약속 29절: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과 수치와 상처로 인해서만 가능하다. ★★★

결론

인생이 붕괴되는 상처와 실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믿음 때문에, 경고를 주시려고, 어느 경우든 이겨야 한다. ★★★

어려움이 올 때에는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23).

잘못 했으면 주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바라고 내 잘못을 고쳐야 한다(24).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룬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25).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장 아픈 것, 재앙, 법정
그 선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다.